

◎ 응 답 : 한상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물질규제1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정확한 내용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기관은 현행 원자력법 상에서 검사, 교육, 인력, 측정장비의 보유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오직 사용 및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지하고 계시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필증 상의 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관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사선안전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관리가 결코 옳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험도의 차이가 있다 해도 방사선은 발생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에 대해 잘 훈련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불의의 사건들은 발생하기 쉽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마당

담배와 금연운동의 역사

서기 700년 멕시코 마야문명의 벽화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오랜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약 500년 전쯤 부터라고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중요한 회의를 하기 전에, 같은 연기를 마심으로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옛날 우리나라의 담뱃대와 같은 긴 파이프에 담뱃잎을 넣어 연기를 돌려가면서 마셨다고 한다.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인디언들의 이런 관습이 유럽지역에 잘못 전달되어 현재의 잘못된 습관적인 흡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담배가 서구에 소개된 것은 당시 유럽에서 외국의 신기한 것을 따라하는 귀족들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잘못된 습관적 흡연형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디언들의 정신적 단합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가 잘못 전해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나쁜 습관이 된 것이다.

유럽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1592~1598)때라고 한다. 초기에는 담배가 기관지염을 일으켜 객담(가래) 배출이 증가되는 것을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생각할 정도로 담배가 건강에 나쁜 것을 몰랐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는 “병든 사람이 대통을 가지고 연기를 마시면 능히 담과 한을 제거하고 또 술을 깨게 한다.”고 하였고 담배의 근원에 대해서 남만국에 담바고라는 여인이 풀을 복용하고 담질환을 고쳤으므로 남만초라는 이름을 붙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경험으로 알고 있던 담배의 해독이 과학적으로 선언된

것은 1962년 영국의 Hammond와 Hom 의 보고와 1964년과 1979년 미국 보건국장(Surgeon General) 의 ‘흡연과 건강’이란 보고에서이다.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학적 연구가 있었으며 담배의 해독 성분과 발암물질, 흡연의 해독이 많이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21세기 중반에는 담배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금연운동가들의 구호도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연운동은 1905년 대한매일신보의 ‘금연동맹 선언문’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고, 1980년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결핵협회가 주축이 되어 금연운동이 전개되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1995년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발표되었다.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 증진법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출입지역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큰 건축물이나 공연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금연과 절주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의 의지가 담겨있다.

금연 운동가들은 미래의 역사책에는 담배가 ‘사람들이 500여년간 잘못 사용하여 각종 암, 심장 질환, 폐 질환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게한 마약의 일종’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